



북한 기도회

2020년 12월 - 2021년 1월





기도제목1. 2021년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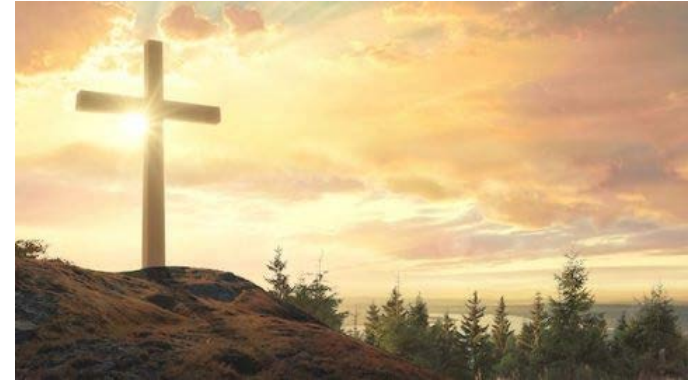
2020년을 회상해보면 여러 난관 속에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은 한반도의 평화가 진전되길 바랍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종교 박해와 인권 탄압이 완화되고 특별히 북한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들려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한반도 복음화와 통일의 역사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2. 북한의 신앙의 자유 증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종교정책의 변화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운영 등을 내세우며 종교의 자유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월 중 발표 예정인 2021 오픈도어 세계박해지수에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세계 최악의 박해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예배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잡히거나 순교하는 성도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국제 사회와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의 종교의 자유 증진과 인권 개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3. 박해 받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믿음을 지켜가는 북녘의 성도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성도들, 신앙적 배경으로 인해 전에 추방된 성도들의 후손들, 그리고 신앙을 숨기고 지하로 숨어든 이들, 또 국경 사역을 통해 복음을 받아드린 분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밀 신자들이 북한 내에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2016)),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내지 성도들을 영육간에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2004년 후지TV에서 공개한 요덕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RFA 사진 재인용)



기도제목4.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2020년은 경제 제재, 코로나19 국경 봉쇄, 그리고 태풍과 홍수 등 자연 재해 까지 매우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금번 겨울도 추위 뿐 아니라 코로나19 2차 확산과 이로 인한 국경 봉쇄로 더욱 매섭습니다. 제한된 교역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미비한 난방 및 주거, 의복 환경은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더욱 힘겹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며 각종 미신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일용한 양식이 공급되고 영과 육이 모두 생명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겨울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북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현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얼어붙은 강물에서 빨래하는 북한 여성 (사진: 강동완 저 “평양 밖 북조선“)



기도제목5.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선교 환경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계속 되고 이로 인해 사람의 왕래가 매우 제한적인 가운데 그 외 국가 간 이동도 계속해서 제약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의 이동과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완화되는 듯 했던 방역 통제가 다시 강화되고 비자 문제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힘써온 동포 조선족 교회들이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6. 대북 라디오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디오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복음을 북녘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작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방송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북녘으로 송출될 수 있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21년에는 더욱 나아진 제작 환경에서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방송이 제작될 수 있도록, 방송사역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깨끗한 음질로 잘 들려지도록, 그리고 듣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